



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오대환
편집장: 이경진
편집: 오대환
외대신문사
전화: 772(322)
13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70-1
인쇄: 조진영/발행: 오대환

외대학보

(1958. 3. 27. 제 391호 편입간)
(등록번호 제 253호)

제 391호
〈주간〉
1984년 5월 4일
매주 금요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 11일

우리말의 쓰임새 ㉔ 그림성

『원형성에 따른 생활의 수업을 통해 보자는 노력이지 우리말에 그림성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있었음이다.』(구상의 편지를 읽는 '84 4월호에서) 그림성은 부사로 쓰이는 그림성(정형성)이다. 뜻은 그림 그리는 것이지만 그림이 아무 대용이,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림성(정형성)은) 부속(부속)으로 정형성을 하는 자에야 그림성(정형성)은 안된다.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용인캠퍼스 단대평정선서와 통일하게

4월30일 본교 기적실은 현 용인캠퍼스의 아문대평정선서와 통일하게

용인캠퍼스 제3강의동 기공

연건평 2천평... 내년 말 완공

용인캠퍼스 제3강의동 신축공사 기공식이 4월18일 11시30분, 제1강의동 맞은편 공사현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기공식은 서재영 총장과 이문환 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3강의동 기공식을 주관하는 3강의동 건설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서재영)가 주관하여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기공식은 3강의동 기공식을 주관하는 3강의동 건설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서재영)가 주관하여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어문대-동양·서양어대로 사회과학대-상경대로

용인호국단 건의 받아들여

용인캠퍼스의 용인호국단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용인호국단 건의는 용인호국단 건의에 대한 건의였다.

그동안 용인호국단 건의는 용인호국단 건의에 대한 건의였다.

외무고시 2차에 5명 합격

작년에 비해 저조... 4월 3차 시험

용인캠퍼스 2차에 5명 합격

작년에 비해 저조... 4월 3차 시험

UCB 연수 장학금

김흥배 이사장 1백만원 기탁

UCB에서 800명

김흥배 이사장 1백만원 기탁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4·19혁명 기념행사 (심포지움) 엄수

천여명 대규모 시위... 9시경 자진 해산

4·19혁명 기념행사 (심포지움) 엄수

천여명 대규모 시위... 9시경 자진 해산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학내 학생회와 후원위원회

사실 교향 요한 바오로 2세
 의 방문은 한국 천주교의 주교
 단의 초점을 받아 방문하는 「사
 복의 방문」이다. 사복의 방문
 이한 이 땅의 하느님 백성들,
 특히 고난받는 민중들과 아픔
 을 함께 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사복의 방
 문이란 예초의 폭력이 원색하
 고 정치적 방문으로 변질된



민주적 자치활동을 기대한다

홍보교육국홍보과장

이러한 한의자유학의 바탕으로 모든대학이 실행 조

—「평화의 메시지」 가져온 교황 방한을 생각한다.

약한

라틴 아메리카 추교회의—
 명백하게 주예볼라 회의는갈라
 리를 통해 선포한다는 콘스탄
 틴 대제 이후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공식적으로 타파한 최
 초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로써
 라틴 아메리카 교회는 라틴 아
 메리카 뿐 아니라 제3세계 교
 회에서그대로 나아가게 된다

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통치를 경험하였고 신식민주의의 경제적 지배와 군부 독재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제3세계의 교회에 있어서 「가난한 이들의 교회」라는 라틴 아메리카 교회와 새로운 모습은 세계성과 보

모든 종교의 본질적 목표는 「인간의 구원」에 있다. 기독교의 목표도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왔으며, 하느님 나라를 지상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온갖 억압과 불의

심적인 사명

여대사

제들이 산책을 있다.

한쪽 모퉁이는 이 땅의 민

현장은 리는 다. 한국교회는 진지하게 자반성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 협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러스토가 죽을 뒤에 부뜻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태어나야 한다.

양한 이해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현실감각에서 다수의 정당과 의견전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절충적거점에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보조 합의점을 찾는 생활양식이 발휘될 것 인데 학생자치활동은 학원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기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네
은반

자연 이세상에
존재하.

오르
자, 많
하는
와 없
와 실
리가
다. 또
존재하.

회 안 돼야

이처럼 파दै정가 또한 잘못 일 수 밖에 없다. 고통까지를 포함 해서 어떤 한 사람의 한가지 및 만으로 고난의 현장에 정의와 평화의 부활을 기약 되지 않는다.

이미 교황이 다녀갔던 플란
타와 필리핀과 남미의 여러 나
라도 아직 믿는 충간지 못하
다. 오히려 그늘이 더 깊다.
우리는 그 현실을 냉철하게 보
아야 한다. —

나는 교황이 이렇게 오는듯
은 그가 실을 쏘, 가두고 거두

의 부류로 나눌
 각계 각층의 서로다
 심과
 다.
 밖에
 에서
 립에
 있으
 는

가 일부분이다. 권력이 그들에게 압력을 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치되는 부인을 불사
 하는 태도를 포기하도록 하
 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를 제거하는 자기의 권능을
 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리한 부류들은 자신들의 권
 지식으로 때로는 지배자의

방관자의 부류



대물거기를 할라치켜주기도 한다. ▲우리 대학교에도 이러한 부부의 지식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대학교에는 즐거자제 학생들을 이 계속되었지만 늘상 광외와 양공의 상상은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장소를 지금에 와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두하다. 많은학우들이 정서

피할 수 밖에
방관을 한다는 것
이
는 것이요 이
일에 만족하고 안
「자식이는 끝없이
나의 근원적 상황
새로운 형태로
대항하여 부단히

DISCO THEQUE

한국이 높은 세계 정상 음악

尹伊桑

지금 당신을 AFKN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까?

- 안방에서 AFKN을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AFKN의 회원이 되십시오.
- 회원이 되신 분에게는, 아나운서에 의해 편집제작된 국·영문 대학교재와 원음 Tape를 매달 1개씩 1년동안 배달하여 드립니다.

내용 : News, Drama, 生活会話, 貿易英語, TOEFL 등

특전 : BONUS증정,

- 1년 48,000원
- 6개월 - 27,000원 (본금남는)

사훈의 및 신청 : 261-8366, 8595

AFKN 株式會社
時事外國語社

서울 중구 옥지동 3가 65-24 이빌딩 2F

AFKN **株式會社**
時事外國語社

서울 중구 옥지동 3가 65-24 이빌딩 2F

이것은 小説인가,
영혼으로 빛나든 주문인가?

